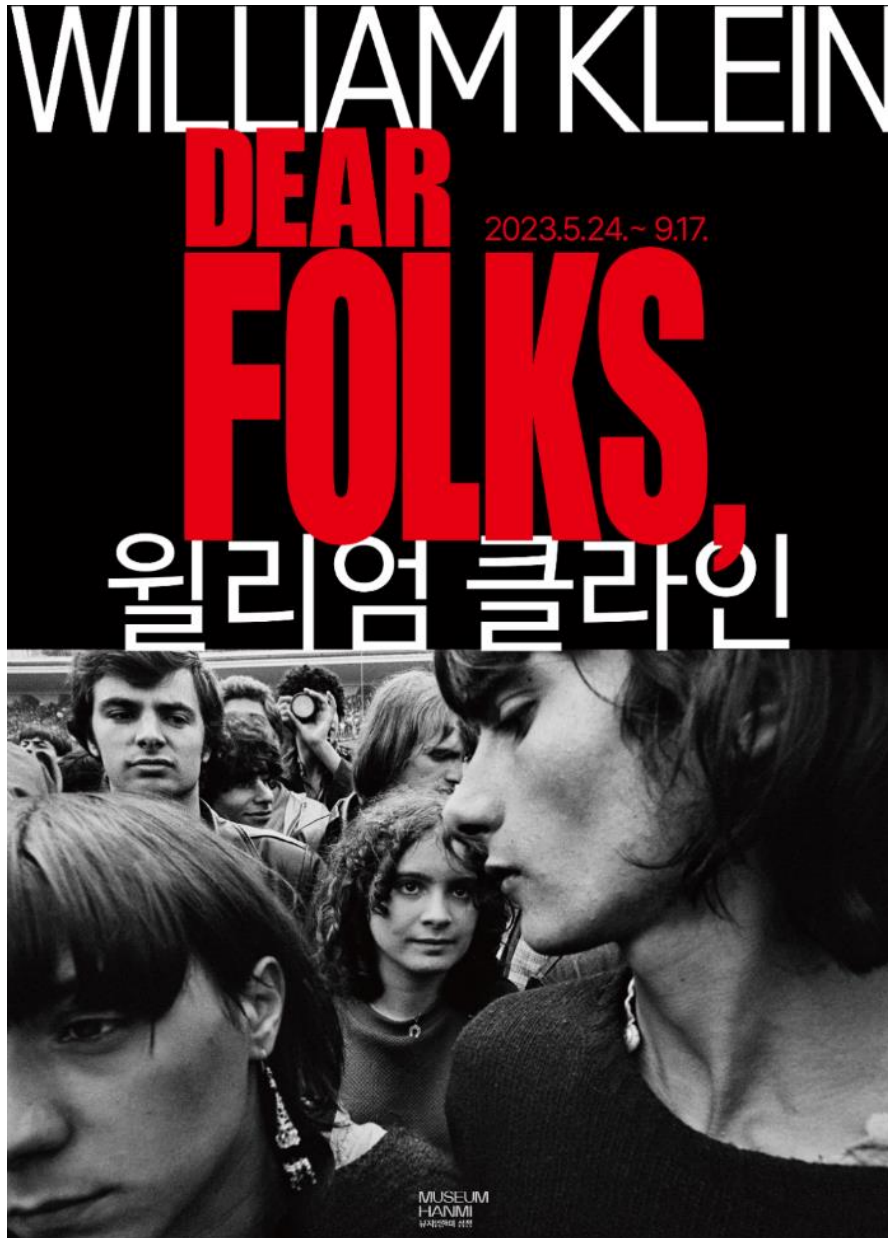


뮤지엄한미 삼청 기획전

## 윌리엄 클라인, 《DEAR FOLKS》 개최

2023. 5. 24. (수) ~ 9. 17. (일)



- 2022년, 96세 일기로 별세, 윌리엄 클라인 첫 유고전
- 회화, 사진, 영화, 책 등 작품 130점과 북메이커로서 작가의 정수 드러낸 아카이브 자료까지 작가일생 전모를 일별

---

## 전 시 소 개

---

■ 뮤지엄한미(관장 송영숙)는 2023년 해외작가 기획전으로 20세기 시각예술의 새 흐름을 선도한 윌리엄 클라인(William Klein, 1926~2022)의 첫 유고전 《DEAR FOLKS》를 5월 24일부터 9월 17일까지 삼청 본관에서 개최한다.

■ 이번 전시는 윌리엄 클라인의 작품세계를 조망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회고전이다. 클라인은 현대 사진을 비롯한 현대 영상미학의 시발점에 선 예술가로서, 회화, 디자인, 사진, 패션, 영화, 책 등 다양한 분야를 종횡무진하며 종래의 규칙과 금기, 한계를 내던진 그의 작업은 전 대미문의 독창적이고 파격적인 특질로 기존 시각예술의 전통과 미학의 판도를 전복시켰다. 이번 전시는 그간 특정 장르나 작품에만 국한되어 알려진 작가의 작업인생 전반을 연대별, 장르별로 충실히 조명한다. 그의 작업경력에 가장 핵심이 되는 195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까지의 회화, 디자인, 사진, 패션, 영화, 책 등 작품 130여 점과 자료 40여 점을 한 자리에 망라해 소개함으로써 전방위 예술가로서 클라인의 진면모를 살피는데 목적을 두었다.

■ 전시는 총 8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었다. 작가 경력의 시작점인 1950년대 초기 회화부터 회화와 사진, 그래픽 디자인의 영역을 교차시킨 포토그램인 '황홀한 추상', 야외에서 카메라로 촬영한 첫 사진작업인 '흑백의 몬드리안', 현대사진의 도화선이 된 '뉴욕'과 도시 거리사진과 사진집 섹션인 '도시의 사진집', 1960년대 문자와 추상을 결합한 '레트리즘 회화', 1955년 『보그』와의 협업으로 시작한 '패션' 사진, 다큐멘터리 영화와 장편 극영화(일부 상영)를 살펴볼 수 있는 '영화', 1990년대 밀착 프린트 위에 색을 칠한 '페인티드 콘택트'까지, 작가의 전 생애에 걸친 작업 전반을 소개한다. 특히 '도시의 사진집' 섹션에서는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희귀 자료들 - 『뉴욕』 초판본과 클라인이 작업한 오리지널 편집구성안, 초판본과 함께 삽입되었던 책자, 그리고 아카이브의 묘미라 할 수 있는 『뉴욕』 사진집의 목업 - 을 선보인다.

■ 이번 전시와 연계하여 1층 개방수장고에서는 뮤지엄한미의 소장품 중 클라인이 생전에 좋아했고 영향을 받았던 워커 에반스(Walker Evans, 1903~1975)의 사진 작품 20여 점을 전시한다. 1926년, 뉴욕의 헝가리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클라인은 18세에 군입대 전까지 미국 뉴욕의 현대미술관(MOMA)를 줄곧 드나들며 사진과 회화, 아방가르드 예술을 접하며 안목을 길렀다. 청년 시절 클라인은 인상파와 세잔, 피카소를 좋아했고, 사진 분야에서는 농업

안정국(FSA) 사진들과 루이스 하인(Lewis Hine, 1874~1940), 특히 워커 에반스의 직설적인 도큐먼트를 좋아했다. 클라인이 영감을 얻었을 에반스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윌리엄 클라인은 한 장르로 정의할 수 없는 인물이다. 50여 년 동안 화가, 거리 사진가, 패션 사진가, 디자이너, 책 편집자, 집필가, 다큐멘터리 및 장편 영화제작자로 여러 종류의 삶을 이끌어 나갔다. 그런 그의 화려한 이력과는 별개로 흥미롭게도 개별 분야에서 클라인을 아는 이들은 타 장르의 그의 경력과 의미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작가의 다발적인 예술 행위와 여러 장르를 아우르며 구현한 작품세계가 재조명되고 있는데, 《DEAR FOLKS》 또한 서로 독자적인 영역에서 행해진 것들이 사실은 한 사람의 독창성과 영감에서 비롯된 일맥상통한 궤적이자 타고난 작가의 광범한 기량을 가리키는 업적을 강조하고자 한다.

■ 본 전시의 실현을 위해 작가와 미술관은 2015년부터 협의를 시작했다. 양측이 전시의 큰 틀과 방향성을 논의한 후 전시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 미술관과 작가의 스튜디오(FILMS PARIS NEW YORK)와 객원 큐레이터로 참여한 라파엘 스토펙(Raphaëlle Stopin)이 의기투합했다. 세 팀은 지난 2022년 9월 작가가 별세한 후, 전시의 세부항목을 조율하고 결정함에 있어 실제로 준비과정의 많은 부분을 세심하게 관여했던 작가의 선택지를 추측하고 따르는데 집중했다. 작품 선택과 배열,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그의 취향과 미적 감수성, 인간적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는 안을 모든 결정 사항의 최우선으로 삼았다.

■ 인류를 향한 부드러운 호소인 'DEAR FOLKS'라는 전시제목은 그의 풍자적이고 도발적이면서도 위트 넘치는 인간적 면모를 십분 투영한 작가의 일상 언어인 한편, 일평생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 속에 있고자 했던 작가의 작업세계를 압축한 단어다.

■ 객원 큐레이터 라파엘 스토펙은 "2022년에 세상을 떠난 클라인이 살던 시기는 카메라, 유성영화, 텔레비전에서 디지털 기술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스틸 이미지와 활동사진과 관련된 수많은 발명이 이루어진 시대"라며, "사진은 그 시작부터 기술적 대상이었기에 발빠르게 산업화되었고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사진과 그 뒤를 이은 활동사진에서 복제가 가능한 예술이 태어났고, 광범위한 배포는 당연한 수순으로 대중매체의 생성과 빠른 확산에 기여했다. 클라인은 이 대중을 위한 예술을 수용하고 대중을 겨냥해 활용한 1인"이라고 밝혔다.

■ 본 전시의 개막 주간에는 작가의 스튜디오 매니저이자 클라인과 30여 년간 협업해온 피에르-루이 드니(Pierre-Louis Denis)와 객원 큐레이터 라파엘 스토팽이 참여하는 연계세미나가 예정되어 있다. 그 외 전시 기간동안 진행될 연계 토크, 대상 별 교육 프로그램과 큐레이터 투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미술관 홈페이지(<https://museumhanmi.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더불어 국내에서 처음 제작하는 윌리엄 클라인의 사진집이 출간될 예정이다. 한국적인 미감과 모던한 형식미가 가미된 도록은 작가의 타계를 추모하는 의미로 제작되었다. 책에는 전시작품 중심의 도판과 함께 뮤지엄한미 최봉림 부관장의 비평글과 객원 큐레이터 라파엘 스토팽의 글이 수록되었다. 지난 2022년 11월에는 전시에 앞서 미술관 소장품을 포함한 클라인의 작업이 수록된 미술관 아트 캘린더(비매품)를 제작해 소개한 바 있다.

■ 뮤지엄한미 송영숙 관장은 “윌리엄 클라인은 사진사적으로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운 한편, 매체의 정형적인 범주를 유쾌하게 비틀고 타 장르를 자유분방하게 넘나든 혁신가였다”면서, “가장 사진적이면서도 사진의 틀을 넘어 매체에 대한 치열한 탐색과 자유로운 정신이 융합한 그의 진면모를 마주하고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 작가 프로필



사진 작가, 화가, 영화감독, 그리고 그래픽 아티스트인 윌리엄 클라인은 20세기의 가장 논쟁적이고 영향력 있는 예술가 중 한 명이다. 전방위 예술가인 클라인은 패션과 도시 거리사진 등과 같은 특정 분야에 혁신을 일으켰으며, 1956년 뉴욕, 1959년 로마, 1964년 모스크바, 1964년 도쿄, 2002년 파리와 같은 세계 주요 수도를 배경으로 한

작업들은 그를 당대 가장 저명한 사진 작가 중 한 명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다.

그는 1960년대 중반 영화에 전념했으며, 이후 20여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 장편 영화 및 극영화를 연출했다. 영화 〈Who are You, Polly Maggoo?〉로 1967년에 장 비고 상을 수상했다. 2005년에는 파리 퐁피두센터에서 클라인의 사진, 회화, 영화에 대한 대대적인 회고전을 열었으며, 2012년에는 런던의 테이트 모던에서 그의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그는 그의 생애 마지막 날까지 그의 작품들을 계속 전시해왔으며, 그의 스튜디오 또한 그의 작품을

전 세계에 계속 알릴 계획이다.

---

## 전시 연계 세미나

---

윌리엄 클라인의 사후 첫 회고전이 개최되기까지 2015년 작가와 뮤지엄한미와의 만남에서부터 기획과정 전반에 대해 진솔하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윌리엄 클라인이 작고 전까지 전시 방향을 함께 논의한 김선영 뮤지엄한미 학예연구관을 비롯해 뮤지엄한미와 공동기획으로 참여한 객원 큐레이터 라파엘 스토팽과 윌리엄 클라인 스튜디오 매니저 피에르-루이 드니가 참여한다. 윌리엄 클라인 《DEAR FOLKS》 전시연계 세미나를 통해 회화, 디자인, 사진, 패션, 영화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예술가로서의 면모는 물론, 그의 예술적 감각과 정서를 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참여자: 라파엘 스토팽(객원 큐레이터), 피에르-루이 드니(윌리엄 클라인 스튜디오 매니저)

모더레이터: 김선영 (뮤지엄한미 학예연구관)

일시: 5월 24일(수) 오전 11시

장소: 뮤지엄한미 삼청본관 B1F

참가비: 15,000원

세미나 참여자 프로필



라파엘 스토폽(Raphaëlle Stopin, 1978~ )은 소르본 대학에서 예술사를 전공하고, 프랑스 루앙 노르망디 지역 사진 센터의 디렉터이자 독립 큐레이터 및 저술가로 활동 중이다. 젊은 작가들의 작업을 비롯해 사진에 관한 새로운 쓰기 방식을 지속적으로 탐구하며,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 및 재평가하는 작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가 기획한 주요 전시로는 노르망디의 루앙 성당(2016), 마드리드의 Telefonica 재단과 바르셀로나 La Pedrera(2019~2020)에서 열린 윌리엄 클라인의 회고전이 있다. 또한, 윌리엄 클라인의 영화 〈Who are You, Polly Maggoo?〉에 헌정하는 전시를 프랑스 Villa Noailles(2016)에서 기획했다.



피에르-루이 드니(Pierre-Louis Denis, 1967~ )는 FILMS PARIS NEW YORK의 총괄 매니저이다. 소르본 대학에서 문학, 예술 및 커뮤니케이션을 공부(1986~1987)한 후 사진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고블랭(Le Gobelins) 학교를 졸업(1988~1990)한 후 군대의 영화, 사진 부서에서 1년간(1990~1991) 복무했다. 1991년 윌리엄 클라인을 만나 클라인이 타계하기 전까지 30년간 그의 조수로 일했다. 흑백 암실 인화 및 전시를 위한 프린트 점검 및 준비과정을 총괄 감독했으며, 그러는 동안 클라인의 아카이브에 관한 누구보다 방대한 정보를 갖게 되었다. 그는 클라인의 책과 전시 카탈로그의 모든 레이아웃 작업을 도왔으며(20여권 이상 발행), 2005년 이후로는 자문, 실행 파트너로서 다수의 기관 및 갤러리 전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클라인과 함께 유럽, 미국 및 아시아를 여행했다.

MH

홍보용 이미지 목록

No.	작품 이미지	캡션 및 상세정보
1		<p>〈그의 추상 작업 앞에서 윌리엄 클라인〉</p> <p>c. 1952</p> <p>©Estate of William Klein</p>
2		<p>〈Self Portrait, William Klein Studio, Paris〉</p> <p>1993</p> <p>©Estate of William Klein</p>
3		<p>〈Gun 1(1954), 퐁피두센터에서의 회고전(2005)의 도록 표지와 포스터로 사용한 페인티드 콘택트〉</p> <p>2005</p> <p>©Estate of William Klein</p> <p>MH</p>
4		<p>〈Barn on Walcheren Island (where Mondrian lived), Zeeland, Holland〉</p> <p>1952</p> <p>©Estate of William Klein</p>

5		<p><b>〈Untitled〉</b></p> <p>c.1952</p> <p>©Estate of William Klein</p>
6		<p><b>〈Candy Store, Amsterdam Avenue, New York〉</b></p> <p>1954</p> <p>©Estate of William Klein</p>
7		<p><b>〈Rolling Stones Concert, Auteuil Hippodrome, Paris〉</b></p> <p>1982</p> <p>©Estate of William Klein</p>
8		<p><b>〈Lettrist Painting〉</b></p> <p>c.1960</p> <p>©Estate of William Klein</p>



<p>9</p>		<p>〈Antonia + Simone + Barbershop, New York〉 for Vogue</p> <p>1962 ©Estate of William Klein</p>
<p>10</p>		<p>〈Antonia and mirrors, Paris〉 for Vogue&gt;</p> <p>1963 ©Estate of William Klein</p>
<p>11</p>		<p>〈Models Backstage, Op-Art, Qui êtes-vous Polly Maggoo?〉</p> <p>1966 ©Estate of William Klein</p>
<p>이미지 요청 및 문의 이은진 02-733-1315 <a href="mailto:press@museumhanmi.or.kr">press@museumhanmi.or.kr</a></p>		<p>보도자료 및 홍보용 이미지 다운로드 <a href="http://www.webhard.co.kr">www.webhard.co.kr</a> ID: hanmimuseum / PW: 1315 게스트 폴더 &gt; '내리기 전용' &gt; DEAR FOLKS</p>

※ 이미지 및 추가 자료는 뮤지엄한미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웹하드 주소: [www.webhard.co.kr](http://www.webhard.co.kr) (ID: hanmimuseum / PW: 1315)

MH

---

## 전 시 개 요

---

전시제목 : 《DEAR FOLKS》

전시기간 : 2023년 5월 24일(수) ~ 2023년 9월 17일(일)

전시장소 : 뮤지엄한미 삼청본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9길 45)

전시작품 : 사진 130여 점, 자료 40여 점

주 관 : 뮤지엄한미

기 획 : 뮤지엄한미, FILMS PARIS NEW YORK, 라파엘 스토펙

후 원 : (재)가현문화재단

관람시간 : 매일 10:00 ~18:00 (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료 : 성인(만 18세 이상~만 65세 미만) 12,000원

초·중·고(만 7세 이상~만 18세 미만) 10,000원

미취학 아동(만 4세 이상~만 7세 미만), 만 65세 이상 6,000원

만 4세 미만 유아, 국가유공자, 복지카드소지자 무료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6,000원 (중복할인 없음)

성인 10인 이상 단체일 경우 1인당 1,000원 할인 (중복할인 없음)

문의 : 뮤지엄한미 삼청본관 대표전화 02-733-1315, [press@museumhanmi.or.kr](mailto:press@museumhanmi.or.kr)

※ 보도자료 및 홍보용 이미지는 뮤지엄한미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www.webhard.co.kr](http://www.webhard.co.kr) 접속

ID: hanmimuseum / PW:1315 로그인

게스트 폴더 > 내리기 전용 > DEAR FOLKS

MH